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통영은 3월 중순에 벚꽃이 피고, 날마다 조금씩 복사한다. 열흘쯤 뒤엔 서울 여의도 운중로 일대에서 벚꽃은 팝콘처럼 만개한다. 나는 벚꽃의 아름다움에 탄성을 지르다가 탄식한다. 어쩌자고, 하얀 벚꽃은 빛나무 겉은 가지 속 어디에 숨어 있다가 한꺼번에 만개하는가! 봄비가 지나가며 꽃잎을 떨구면 봄은 파장이다. 꽃 진 빛나무 가지에는 연초록의 잎들이 들어난다. 제국이 멸망하듯이 벚꽃은 무너지는데, 하얀 벚꽃 시체가 낭자하게 흩어진 길을 걷노라면 가슴은 슬픔으로 벅차오른다.

젊은 시절, 연락이 끊긴 후배가 머리를 삭발하고 갯빛 승복을 입고 나타나 놀란 적이 있다. 스님으로 변신한 후배의 모습을 보며 나는 말을 잃었다. 그는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다는 것을 끌어안고 변민했노라고 말한다. 인생의 알 수 없음, 그 수수께끼를 품고 출가를 감행한 후배는 곧 수행을 하러 미얀마로 떠난다고 한다. 후배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라는 말을 떠올렸다. 살아 있는 동안 법

벚꽃 필 때 죽음을 생각하라

추지 말고 죽음을 생각하라!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다. 우주 탐사선 보이저 2호가 한 순간도 쉬지 않고 비행해 이 별에 도착하는 데는 약 2만년이란 시간이 걸린다. 보이저 2호의 속도는 총알보다 10배 더 빠르게 날아간다. 지구 행성에서는 날마다 몇 만명이 태어나고, 먼저 이 별에 왔던 몇 만명이 생로병사를 겪으며 죽는다. 2만년의 봄이 왔다가 가는 동안 전쟁 고아들은 굶주리며 거리를 헤매고, 유기묘 수 만 마리가 먹이를 찾아 사방을 돌아다닐 것이다.

우리가 살아서 사랑을 하고 가족을 꾸리는데, 나는 당신을 연모하고, 당신은 내 이마를 차가운 손으로 짚을 것이다. 우리는 김홍화복을 겪으며 평생을 살 테고, 그 동안 바람은 사방에서 불어오고, 폭풍과 뇌우는 우리 어린 자식들을 무서움으로 떨게 할 테다. 우리에게 위안이 되었던 것은 해마다 어김없이 봄이 돌아오고 이토록 아름다운 봄날에 모란과 작약이 핀다는 것이다. 당신이 봄날의 백일몽에 잠겨 있는 동안 내 후배는 미얀마의 오지를 걸으며 탁발 수행에 정진할 테고, 보이저 2호는 무서운 속도로 우주를 가로질러 날아갈 테다.

아이들이 청년으로 자라고 어머니들은 늙어 허리가 굽고 백발로 변한다. 세상엔 얼음 위에 엎드려 잠든 사람도 있고, 파업을 위해 나선 노동자도 있고, 서로의 상처를 쓰다듬으며 사랑하는 연인들도 있을 테다. 내게는 괴로운 밤들도 두어 번은 지나갈 테고, 누군가는 제 이

속을 쟁기려고 친구를 배신하고 누군가는 불시에 찾아든 질병으로 비탄에 빠질 것이며, 빛나무들은 봄마다 벚꽃을 피우느라 바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게 무시로 변하며 순환할 테지만 피었던 것은 지고,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법칙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테다. 우리는 대지가 죽음을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지켜보았다. 분명한 사실은 지구에서 동식물들은 죽음을 주기 삼아 순환한다는 점이다.

어느 날 나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문득 내 죽음을 자각한다. 무심히 버스창밖의 간판들을 스쳐지나가던 그 선형의 찰나, 나는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막다른 골목에 갇힌 채 오도고도 못 하는 느낌이었다. 만물을 이루는 원자는 죽은 상태로 존재한다. 별, 우주 먼지, 암흑 물질, 바닷가 모래, 바위 등은 다 무생명이다. "우주는 죽음으로 충만하다." (갑상옥,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 죽음으로 충만한 이 삭막한 우주에서 우리가 살아서 존재한다는 게 기적이 아니라면 그 무엇이 기적일 수 있었는가.

안타깝게도 죽음에는 출구도 빠져나갈 새길도 없다. 죽음이 지구 생물의 역사에서 상수이자 보편의 진리라는 점은 단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진실이다. 당신과 나는 어쩌다가 봄마다 모란과 작약이 꽃피는 걸 보는가? 어쩌다가 저토록 아름다운 벚꽃이 덧없이 지는 걸 봐야 하는가? 벚꽃 필 때 당신의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이여, 나를 만나려거든 부디 벚꽃 핀 봄날에 찾아오라! 나는 활짝 웃으며 너를 맞으마!

종교칼럼

성경 속 인물, 사랑받는 의사 '누가'



최현열
광주 순교교회 담임목사

한국의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의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목숨을 바쳐 환자들을 돌보고 헌신한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그 중에 한국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본 외국 의료진의 호시는 클레멘트 오웬(한국명 오기원, 1867~1909)과 로버트 윌슨(한국명 우월슨, 1880~1963)이다. 그들은 미국의 남장로교회의 파송으로 의료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유진 벨 선교사와 함께 목포 선교지부를 개설하고 1899년 전라남도 최초의 서양식 의료소인 목포 진료소를 세워 병자들을 돌보았다. 오웬은 1904년, 보다 큰 도시인 광주로 옮겨 의료봉사를 시작했다. 환자를 가문대 한센병 환자도 많았다. 몰몰 듯이 몰려드는 환자들을 돌보느라 지칠대로 지친 오웬은 결국 1909년 급성폐렴에 걸렸다. 목포에 있는 의료선교사 포사이트에게 전보를 보내 광주로 올라올 것을 요청했다.

포사이트는 전보를 받고 광주로 올라오는 길에 중증의 한센병에 시달리는 여성을 발견하고 그에게 자신의 옷을 입힌 후 나무에 태워줬는데, 포사이트가 광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웬은 사망한 후였다. 이후에 포

사이트는 목포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이 데려온 나병환자를 벽돌 가마에 거처를 마련해 주고 오웬이 사용하던 침대에 놓여 제증원의 윌슨과 더불어 정성껏 치료하였다. 당시 한센인만 보면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던 최흥중(1880~1966)이라는 건달이 지극한 의료선교사들의 헌신과 사랑에 감동하여 봉선리 땅 1200평을 기부해 한센병원을 짓게 하고 자신도 기독교인이 되어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았다. 이 병원은 후에 여수로 옮겨지며 애양원이라 이름 하였다. 그 의료선교사들 중 많은 이들의 묘가 양림동 호남신학대학교 동산에 있다.

삼국지에서 관우라는 장수는 전투에서 독화살을 맞고 뼈를 깎는 수술을 받는다. 그렇게 치료 받는 중에도 바둑을 두며 의원이 화타와 담소를 나눈다. 관우는 선생님 같은 명의는 처음이라며 신의라고 치켜세우고 화타는 치료중에 통증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그를 보고 진정한 무신이라 말한다. 관우는 다행히 천하 제일의 명의 화타를 만나 치료를 받아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이때 화타는 치료 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한다. 하지만 관우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자 천하의 명의 화타는 관우의 신체 병은 고쳐줄 수 있으나 그의 마음의 병, 즉 오만이라는 질병은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한탄했다. 지금의 정치계나 의료계 모두에게 절필이 되는 말이 아닐까 싶다. 대화와 타협은 어디로 가고 위협과 협박으로 긴장감을 더하고 그 피해는 오롯이 환자들과 국민들의 몫이 되었다. 이러한 혼란 중에도 병원과 환자를 지키는 많은 의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든다. 신약 성경의 '누가'라는 사람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중요한 인물이자 바울의 친구이자 동역자였다. 그는 탁월한 의학 지식을 가진 의사이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로 전해진다. 그의 충실과 출세가 대하여 여러 성경학자들의 설이 분분하다. 그는 유대인 혹은 이방인으로 여겨지지만, 이방인일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누가는 시리아 안디옥의 이방인 가족 출신이라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 신약성경에서 바울은 그를 의사로 기록하고, 그리스어로 쓰여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문체가 그가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의 필체를 가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 신체의 여러 약함을 가지고 있는 바울과 동행하며 바울의 건강을 살렸고,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당시의 민중들을 의료적으로 살피는 것이 선교에도 많은 유익이 있었으리라고 여겨진다. 누가는 이제 바울의 옥중에까지 함께 하고 있으니, 누가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사랑 받는 의사 누가'라고 표현하고 있다. 앞서서 말한 의사의 신분으로 선교사의 일을 감당했던 그들 모두가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사랑 받는 의사가 아닐까 싶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의사들도 환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고마운 사람으로, 사랑 받는 의사임에 대하여 숭고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한다.

기고

과학적 물관리로 극한 기후위기 대응



주인호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장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비상이다. 지난해 남미에서는 겨울철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고, 미국 몬태나주에선 영하 34도를 기록하며 1999년 이후 최저 기온을 갱신했다. 파나마에서는 1950년 이후 73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파나마운하의 선박 통행 규모까지 축소되어 세계 무역이 위축되고 있으며, 두바이에서는 지난 3월 9일 반나절 동안 연간 강수량의 50%에 해당하는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다.

이러한 물 위기 상황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유역면적이 작고 국토의 63%가 산악지형이다. 경사가 급해 홍수가 일시에 유발되고, 갈수기에는 유입량이 적어 안정적 물관리가 어려운 여건이다. 특히 광주 전남지역의 두 물줄기인 영산강과 섬진강은 한강, 낙동강 등 타 유역에 비해 유역면적이 작고 유량 변동이 커 물 이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하다. 작년 봄까지 완도 지역에 제한급수를 하는 등 광주 전남지역이 극한 가뭄에 시달리다, 이어진 집중 호우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이렇듯 곳곳에서 전례 없는 '물 재난'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어느 때보다 다각적인 '물관리'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작년 광주 전남지역의 극한 가뭄 상황은 정부·지자체, 물 관련기관, 시민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안정적 유입공급을 위한 댐 건 연계 운영, 대국민 물 절약 캠페인 등 정부와 관계기관 간 협력적 역할 수행과 실생활에서 국민들의 물 절약 실천이 효과를 보였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가뭄이 심각한 도서 지역에 병입 수돗물 약 101만병을 보급하며 즉각적인 감증을 해소함과 동시에 물 확보를 위해 지하수를 저장하는 시설인 저류지댐을 설치하여 가뭄을 극복하였다.

올해는 작년과 다른 양상이다. 세계기상기구(WTO)에 따르면 장기간의 엘니뇨 영향으로 올해 지구 온도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해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는 기록적인 강우량을 동반할 수 있어 국가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극한 호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합리적인 댐 운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 기술을 구축·활용하고 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세계와 같은 3차원 가상 현상이나 사물을 쌍둥이처럼 구현한 후 각종 상황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기술이다. 2022년 섬진강 유역에 최초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한 지금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물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는 유역의 수질관리 측면에서도 다양한 이슈를 만든다. 가뭄으로 물이 줄어들게 되면 오염원의 농도가 높아지고 집중 호우는 비점오염원을 단기간에 하천으로 유입시켜 수질이 악화된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효과적으로 수질을 관리하고자 전남지역 최대

규모인 주암댐 상류 율어천에 131억원을 투입해 고효율 비점저감시설을 설치한다. 율어천은 주암호로 유입되는 하천 중 오염도가 높은 편이다. 비점저감시설이 운영되면 댐에 유입되는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또한 녹조가 우려되는 지역에 녹조를 가위 증식시킨 후 한번에 제거하는 '녹조퇴치발'을 섬진강댐에 시범 구축하여 과학적으로 대응하는 등 수질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극한 기후위기 시대, 심화되는 물 문제 극복을 위해선 다양한 물관리 주체 간의 협력 강화가 필수이다.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유역 물 이슈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거버넌스를 운영 중이다. 수자원·환경·법조·언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영·섬유역상생협력위원회'와 영산강유역환경청·광역시·전남도·시군의 상수도 전문가와 민간 물 전문가로 구성된 '영·섬유역수도지원협의회' 운영을 통해 민생과 직결된 유역 물 현안을 논의할 뿐만 아니라 민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월 22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로, 올해 국내 주제는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다. 정부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물관리 협력을 통해 모두가 함께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물을 대신할 수 있는 자원은 존재하지 않기에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다. 제32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모두가 물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보고 힘을 모아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명하고 지혜가 필요하다.

社說

의대 증원 배정 '환영' 이젠 인프라 '확충'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집해 온 정부가 그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 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의대 증원 2000명은 최소한의 수치라고 강조해 온 정부가 급기야 대학별로 정원을 배정함에 따라 의대 증원이 현실로 다가왔다.

한달 이상 진행돼 온 의정(醫政)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지만 국민 입장에서 환영한다는 반응이 더 많은 것 같다. 대학별 배정 내용을 보면 전체 증원 인력의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했는데 전남대는 75명, 조선대는 25명씩 늘려 당장 내년부터 전남대는 200명, 조선대는 150명씩 선발하게 됐다. 전남대와 조선대 정원은 서울권 8개 대학 가운데 정원이 135명으로 가장 많은 서울대보다 많아 정부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격차 해소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전남 입장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전남권 국립 의대 신설 지원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신속 추진을 약속해 30년 숙원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여전히 위험천만한 '스쿨존' 교통사고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광주지역 학생들은 등·하굣길 사고 위험에 여전히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좁은 인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로 스쿨존(School Zone)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0년 초 이른바 '민식이법'(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 강화)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이 없어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스쿨존 사고는 지난 5년간 84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1건, 2019년 20건, 2020년 16건, 2021년 23건, 2022년 14건으로 꾸준한 추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스쿨존 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113명에 달한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엿그제 찾은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 등 곳곳에서는 순간의 방심으로 인한 아찔한 상황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화정초등학교는 좁은 인도와

의대 증원을 대학별로 배정한 만큼 지금부터는 신속하면서도 꼼꼼한 후속조치가 중요하게 됐다. 대학들은 곧바로 신입생 모집을 위해 5월까지 수시모집 요강을 확정해야 하고 늘어난 신입생 수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의학교육의 질 하락을 이유로 증원을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인프라 확충이 나서야 한다.

교육신 확보, 기자재와 수업 공간 확충이 당장 시급한 과제다. 전남대와 조선대만 하더라도 학교 차원에서 임상 교수 확보와 실험 실습실 개조 등에 나설 계획이지만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것이 의료계에 발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자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길이다. 궁극적으로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 등 강경책만 쓸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대화 창구를 마련해 조속한 시일내에 의정 갈등 해결에 나서야 한다.

좁은 횡단보도로 인해 무단횡단하는 학생들이 눈에 많이 띄었으며 인근 광주여고 주변은 학생들을 등교시켜주는 학부모 차량들로 북비 어수선했다. 초등학교 방향에는 인도에 차단봉 등이 설치됐지만 건너편 인도에는 설치돼 있지 않아 차에서 내린 학생들이 차도로 걷는 위험한 상황도 목격됐다.

서구 광덕고등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은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로 인산인해였다.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가 30m가량 떨어져 있어 일부 학생은 급한 마음에 무단횡단해 교문으로 들어가고 있었으며 광산구 송정초는 정문과 후문 인근에 신호등이 없어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이처럼 고질적인 스쿨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과속 운전 등에 대한 강력한 제지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등·보행 환경 조성과 운전자의 교통습관이 변하지 않으면 어떤 처방도 소용없다.

無等鼓

세상이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 살다보면 말이나 행동이 생각과 다르게 사건의 파장을 키우기도 하고, 의도와 달리 정반대의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에르빈 슈뢰딩거는 양자역학의 불완전성을 비판하기 위해 독특한 실험을 고안했다. 하나의 상자 안에 고양이와 방사성 물질 그리고 방사성 물질의 붕괴를 감지하면 독가스를 방출하는 기계를 넣는다고 가정해 보자. 방사성 물질이 붕괴되면 독가스가 방출되어 고양이는 죽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게 된다.

왜 이렇게까지?

방사성 물질은 붕괴된 상태와 붕괴되지 않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상자를 열고 확인하기 전까지 고양이는 죽거나 살아있는 상태가 공존하게 된다. 양자역학에 의하면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관측하기 전까지는 확률로밖에 계산할 수가 없으며 가능한 서로 다른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 '슈뢰딩거의 고양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양자역학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실험이 되고 말았다. 덧붙이려 할 때, 결과는 나오는 예는 스포츠와 영화의 세계에서조차 찾을 수 있다. 1984년

'도주대사'라 조롱당하는 이종섭 호주 대사 가 어제 귀국했다.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상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상자를 열고 확인하기 전까지 고양이는 죽거나 살아있는 상태가 공존하게 된다. 양자역학에 의하면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관측하기 전까지는 확률로밖에 계산할 수가 없으며 가능한 서로 다른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 '슈뢰딩거의 고양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양자역학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실험이 되고 말았다. 덧붙이려 할 때, 결과는 나오는 예는 스포츠와 영화의 세계에서조차 찾을 수 있다. 1984년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政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